

인전 교역 소식	제 16-04호
고린도에 있는 교회	<p>이실 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한 묵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공동 묵이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몫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 받았다. 그리스도는 부름 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묵이시고, 우리는 중심이신 그리스도의 누림과 교통 안으로 부름 받았다.</p>
고린도전서 1장 2절 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교회의 존재와 표현과실행을 위한 고린도라는 지방을 보여 준다. 이러한 지방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지방적인 타가 된다. 교회들은 각 각 이 지방적인 터 위에 건축된다(행 8:1, 13:1, 계 1:11). 교회의 존재와 표현과실행은 교회에 참으로 한 장소가 필요하고, 신약에 따르면 그 장소가 지방이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에 건축되었다. 아테네에 있는 교회는 아테네 라는 터 위에 건축된다. 뉴욕에 있는 교회는 뉴욕 시라는 터 위에 건축된다. 그러므로 지방은 자연적으로 교회의 타가 된다. <p>만일 우리가 한 도시에 한 교회라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유지할 수 있다. 어느 도시에 온 믿는 이들은 그 도시에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만일 내가 도쿄에 간다면, 나는 도쿄에 있는 교회에 속해야 한다. 만일 내가 런던에 간다면, 나는 런던에 있는 교회에 가야 한다. 만일 내가 텔라스로 간다면, 나는 텔라스에 있는 교회의 집회에 가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분열은 없을 것이다. 성경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모여야 하는가의 모형을 세웠다. 그리스도인들의 처음 모임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 모임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불렀다. 예루살렘은 큰 도시이지만 그 도시에 단지 한 교회만 있었다. 비록 한 도시에 한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한 장소에서만 모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도시가 교회의 유일한 지방적인 터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p>	
부름 받은 성도들	<p>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름 받은 이들, 곧 부름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골격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고(고전 1:2하), 삼일 하나님은 교회의 내용이신데, 그 영은 본질이시고 주님은 요소이시며 아버지께 찬양이시다. 교회의 골격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이들, 곧 진정한 믿는 이들, 참된 성도들이다. 교회는 반드시 지방적인 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하고 성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p>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p>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함께 보내졌다. 이 서신의 수신인은 고린도의 성도들뿐 아니라 각처에 있는 이들도 포함한다(고전 1:26하). 심지어 오늘날 우리도 이 책의 수신인이다. 이 서신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쓰였고, 여러 세대를 거쳐 수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힐 것이다.</p>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이 됨	<p>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것과 우리의 것이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도가 고린도라는 지방에 있는 성도들의 묵이시고 또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교통(누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묵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믿는 이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전 1:2하, 9). 동일한 그리스도도가 단지 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위한 묵</p>

인전 교역 소식	제 16-04호
아침에 부흥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는 이의 생활	

인전 교역 소식	제 16-04호
아침에 부흥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는 이의 생활	

고후 4: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 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새 길은 개인적인 부흥으로 시작 한다

우리는 반드시 새 길 안에서 전전하기를 행해야 한다. 가장 집회이든 소그룹 집회이든 지역 집회이든 우리 자신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반드시 부흥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부흥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매일 매일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가까이 이끄러지고, 그분의 말씀을 누리고 우리의 영 안에서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매일 아침 부흥되어야 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이기는 자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빛을 밝히는 해로 비유되고 있다. 해는 매일 아침 새롭게 떠오른다. 만일 우리가 해와 같은 이기는 자들이 되려면 우리 또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주님께 의해 부흥되어야 한다. 절친 4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인의 길은 돌은 햇빛 같아서 점점 밝아서 영원한 광명(완전 낮이 뜨르거나(미국 표준액), 우리는 해를 쫓아서 매일 아침 부흥되고 새롭게 거듭어져야 한다. 우리의 길은 돌은 햇빛 같아서 점점 밝아서 영원한 광명에 이른다. 나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나날이' 라는 바울의 표현을 좋아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단지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은 매일 매일 우리가 주님으로 부흥되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어찌 아침에 우리는 부흥되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는 또 한 번 부흥이 필요하고 내일 우리는 다시 한 번 부흥이 필요하다. 매년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365번의 부흥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성한 생명 속에는 새롭게 하는 역량이 있다

신성한 요소는 매우 활동적이다. 그것은 활력을 주고, 역사하며, 유기적이다. 유기적인 것은 어느 것이든 그것 안에 활력을 주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신성한 생명 속에는 새롭게 하는 역량이 있다. 이 역량은 단지 신성한 생명의 분량만이 아니다. 내가 '역량(capacity)'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신성한 생명의 본성 안에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안에는 하루 종일 활력을 공급하는 능력이 있다. 일단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 생명은 우리 속에 활력을 공급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서 활력을 공급하는 신성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성한 요소 안에는 새롭게 하는 역량이 있다.

아침에 부흥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는 이의 생활

하나님의 창조와 인베하심 안에는 모든 것에 법칙과 원칙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베하심 안에는 모든 것에 법칙과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생명이 다. 만일 오늘날 우주 안에 하늘과 땅만 있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의 생명이 없다면 우주는 비어있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

인전 교역 소식	제 16-04호
고린도에 있는 교회	<p>이실 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한 묵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하신 공동 묵이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몫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 받았다. 그리스도는 부름 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묵이시고, 우리는 중심이신 그리스도의 누림과 교통 안으로 부름 받았다.</p>
성도들 사이의 분열은 사도에 의해 유죄 판결됨	<p>성도들 사이에 분열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대표 권위인 사도에 의해 유죄 판결되었다(고전:110-13).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불쾌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바울에게 속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아볼로에게, 또 다른 이들은 게바에게 속했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네 무리로 나뉘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마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에게 몇 명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게바를 위해, 아볼로를 위해, 바울을 위해,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 한 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게바, 아볼로, 바울, 그리스도와 관계 없이 여러분에게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한 교통은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의 교통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분열은 그리스도의 대표 권위인 사도에 의해 유죄 판결 받았다. <i>(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95-98쪽)</i></p>
생명에 의해 보존되는 '하나'	<p>성경 가운데 전체적으로 계시된 위대한 '하나'는 오직 생명에 의해 보존될 수 있다. 생명이 없으면 하나가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의 몸은 이 점을 설명해 준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모든 지체들은 하나의 생명, 즉 몸의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모두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몸의 '하나'는 바로 그 생명이다. 그러나 시체가 매장될 때, 그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해체된다. 생명이 육신의 몸에서 떠날 때 육신의 지체들은 분리된다. 이것은 사람의 육신의 몸이 소유하는 '하나'의 본질은 육신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생명이 없으면 '하나'가 없다.</p> <p>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의 단체인 사람은 수많은 후손들을 낳도록 되어 있었다. 이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로 유지될 수 있는가? 교육에 의해서인가? 어떤 권력에 의해서인가? 조직에 의해서인가? 생명이 없다면, 생명 안에서만, 생명이 있을 때에만 하나가 유지될 수 있다. 아담이 생명의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의 후손들은 수가 많아졌을지라도 모두 하나로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본질의 본질이 그 사람 안에 주입되어 그의 후손은 분열되었다.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의 본질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었다. 이것은 분열은 생명 이외의 다른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결과임을 가리킨다. 이 요소가 불화와 분열의 요인이고, 근원이고, 본질이다. 반대로 하나의 본질은 생명이다. 오직 생명만이 우리를 하나로 유지할 수 있다. <i>(참 하의 임장, 30-33쪽)</i></p>

인전 교역 소식	제 16-04호
아침에 부흥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는 이의 생활	

인전 교역 소식	제 16-04호
아침에 부흥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는 이의 생활	

이 함께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분쟁과 다툼이 있게 마련이지만 생명이 있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신진대사이다. 꽃이 피어야 할 때에 꽃은 피고, 과일 철에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식물의 생명은 사시사철 다르게 반응한다. 같은 방식으로 동물의 생명도 사시사철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겨울철에 많은 동물은 동면에 들어간다. 그러나 봄이 되면 다시 번식하기 시작한다. 인간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보다 훨씬 더 높고 심지어 동물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신진대사 작용의 법칙에 따라, 사람의 생명은 날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단조로울 수가 없다.

우리는 아침 부흥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부흥을 강조 한다

새 길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는 아침 부흥을 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혼자 아침 부흥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흥되는 것은 단순히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져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마다 우리는 부흥된다. 단지 2분 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지고 부흥시키실 수 있다.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 부흥되지 못했으 주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든 못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 따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분은 항상 우리 가까이 계시다. 우리의 양심이 깨닫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파는 우리를 정결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실패, 결점, 과오, 고통 등을 단순히 자백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즉시 주님을 만지고 그분께서도 우리를 만지신다. 이것이 부흥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흥은 매일 신실해야 한다. 아침 부흥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기초한 것임을 우리는 강조한다. 만일 아침에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주님께 10분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부흥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고 부흥되기 위한 10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 생명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부흥은 기독교에 흔히 알려진 그런 종류의 부흥이 아니다. 이것은 특별한 행사들을 동반한 며칠 동안의 기도과 금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갑작스러운 어떤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부흥은 신약에 나타나 있는 새로운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의 길 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라고 말한다. 여기에서의 새로워짐이 부흥이다. 매일 우리는 새로워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새로워짐은 날마다 신실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종류의 내적 생명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것은 외적인 행동과 표현에서 새로워지는 것과는 상반된다. 해가 뜰 때 모든 것-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갖고 신선하고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세우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이와 같다. 매일 아침 우리의 해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떠오르시도록 함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부흥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113-116쪽)